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2년... 집값·경제효과 상승?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부동산 오르고 생산 유발 2000억·고용 창출 1700명”

“혁신도시·U대회 등 변수 다양 객관성 부족” 지적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무등산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론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도 각각 2000여억원, 1700여명에 이르는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립공원지정 후 “부동산 가격 상승”=22일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하 국

립공원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등산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독주택 거래가격은 상승했으며 토지공시지가 상승폭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2011~2012년)에 비해 지정 후(2013~2014년) 아파트 거

래가격은 국립공원 무등산으로부터 거리가 15km 이내 지역은 15km 이외 지역보다 전용면적 1㎡당 7만600원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공원으로부터 1km 멀어질수록 아파트 1㎡당 거래가격은 9천600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 거래가격도 국립공원 지정 후 15km 이내 지역은 그 외 지역보다 거래가격이 4만 4000원 뛰었다. 국립공원 내 지역의 공시지가 증가율의 평균도 2013년 2.96%, 2014년 6.86%로 국립공원 이외 지역(2013년 0.637%, 2014년 3.291%)보다 높았다.

◇“생산유발 1960억원, 고용유발

1687명”=무등산국립공원에 투입될 5년 동안(2013~2017년) 970억원의 정부 예산은 약 1960억원 가량 생산유발 효과 등을 내고 1687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의 생산유발 효과는 1137억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전남지역은 13억여원으로 7%에 그쳤으며, 그 밖의 지역은 686억여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94억으로 예상됐다. 고용효과는 1687명으로 광주는 1199명, 전남은 48명, 그 외 지역은 440명으로 분석됐다.

◇경제 효과...국립공원 지정 덕분에=?

보고서는 ‘국립공원 지정→개발제한’이라는 통념과 달리 ‘국립공원 지정→경제적 이익’으로 요약되지만 그 근거는 빈약하다.

연구원 측은 국립공원 무등산 주변 15km를 기준으로 부동산 상승률을 비교했는데, 이는 광주의 대표적인 택지지구인 남구 봉선지구, 서구 상무지구, 광산구 침단·수완지구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등 사실상 광주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 2년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외에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른 전세난 등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줄만한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서 ‘국립공원지정→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결론지었다는 지적이다.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효과도 정부의 예산 투입액을 분석 공식에 대입한 결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53.7%가 ‘변화없음’으로 답했다.

한편 국립공원연구원은 광양 백운산 등 신규 국립공원 후보지는 늘고 있으나 지정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해 사회적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민주가족 합동세배
광주와 전남지역 재야 원로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올미년 민주가족 합동세배’가 지난 2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 바닷속에 보물선 있다

문화재청 고선박 23척 침몰 확인...태안·진도도 조사

‘여수 바닷속에 보물선이?’ 여수 인근 해역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선체 23척이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한기춘)은 22일 지난 2013~2014년 이 해역에서 바닷속 침몰 선박에 대한 공동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9~10월 두 차례 공동조

사를 통해 확인한 “목선, 철선, F.R.P.(강화플라스틱)선 등 침몰선박에 대한 정밀 데이터베이스(DB)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구축한 DB는 선박 재질과 규모, 위치, 수심, 3차원 해저 지형, 고해상도 해저면 영상과 이미지, 잠수촬영 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구성된다. 두 기관은 지난해 4월29일 ‘수중문화유산 보호 및 국가해양정보의 관리를 위

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각자 보유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협업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 예방, 문화재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해양조사원은 2013년 측면주사음파탐지기와 다중빔음향측심기 등의 해양장비조사를 통해 새로 확인한 침몰선박 39건에 대한 정보를 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문화재연구소는 그중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23건을 선별했다. 올해 두 기관은 ‘바닷속 경주’로 떠오른 충남 태안과 또 다른 고선박 집중 침몰처인 진도 인근 해역에서 공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팍팍’한 광주살이

지난해 공공요금·서비스료 급등...물가 1.3% 올라 전국 1위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생활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생활물가지수 경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도시 평균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0.8%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광주는 1.3% 올라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쌀이나 달걀, 우유 같은 생필품 140여 개를 조사한 물가를 말한다.

광주 다음으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1.2%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충북·경남(1.0%)과 부산(0.9%)의 상승률이 높았고 울산(0.8), 전남(0.8%), 제주(0.8%)의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과 같았다.

이처럼 광주가 생활물가가 가장 많이

인상된 이유는 지난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4.6%나 오르는 등 공공요금이 뛰었다가 냉면이나 짜장면 같은 외식비도 적게는 3%에서 많게는 7%까지 인상하는 등 공공요금과 서비스 비용이 크게 오른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지역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 미만이었으며 충남은 지난해보다 0.2% 내려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생활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이 0.8%였고 16개 시도 중에서는 부산이 1.4%로 가장 높았다. 경남과 제주를 각각 1.3%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충북(1.1%), 충남(1.1%), 전남(1.0%), 전북(1.0%)은 전도시 평균보다 높았고 서울(0.6%)의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보다 낮았다.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0.

2%였다.

지난해 교육물가 상승률은 전도시가 1.5%였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2.0%로 가장 높았다.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는 경남이 1.9%로 뒤를 이었으며 광주는 1.5%로 전도시 평균과 같았다. 나머지 지역은 평균 미만이었다. 교육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0.4%였다.

집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서울과 수도권이었다. 집세에는 전세와 월세가 모두 포함됐다. 전국 평균 집세 상승률은 2.3%였지만 서울은 2.8%로 0.6%포인트 높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다음은 대구(2.5%), 인천(2.5%), 경기(2.5%), 충남(2.5%) 순으로 집세 상승률은 평균보다 높았다. 대전은 2.0%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2% 미만이었다. 집세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0.8%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화전당 성공 개관’ 시민이 이끈다

전문가·교수 등 17명 모임 결성...콘텐츠 등 대안 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된다. 광주지역 문화전문가와 정치인, 대학교수, 시민 등 17명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모임을 만든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모임에서는 박흥근 건축사와 이동호 전 한국화호남진흥원 사무국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시민모임 결성과 활동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민모임 준비위는 정부를 상대로 문화전당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시민 평가를 진행하고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문화전당 콘텐츠 확충 등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문화전당이 제 기능을 하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 · 無출혈 · 無봉합 · 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公認 國家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07기)	광주교육대학교(11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5. 3. 6(금) 09:10 (특강반) ·금요일 오후반:2015. 3. 6(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2015. 3. 7(토) 09:10 (중급반)	·월요일 오후반:2015. 3. 2(월) 14:10 (중급반) ·월, 목, 아간반:2015. 3. 2(월) 19:00 (고급반) ·목요일 오전반:2015. 3. 5(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2015. 3. 7(토) 14:10 (특강반)
모집기간	2015. 1. 23(금)~3. 7(토)	2015. 1. 23(금)~3. 7(토)
수업기간	2015. 3. 6(금)~2015. 8. 15(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3. 2(월)~2015. 8. 15(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획득 기회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획득 기회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문의처 및 접수처	·문 의:0621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1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는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진학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